

부위원장님 모두 발언

◇ 인사 말씀

□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 먼저, 바쁘신 가운데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길재욱 코스닥 위원회 위원장님,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인 및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경제정책 핵심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Scale-up)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음.

- 이러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며,
그 중심에 코스닥 시장이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그간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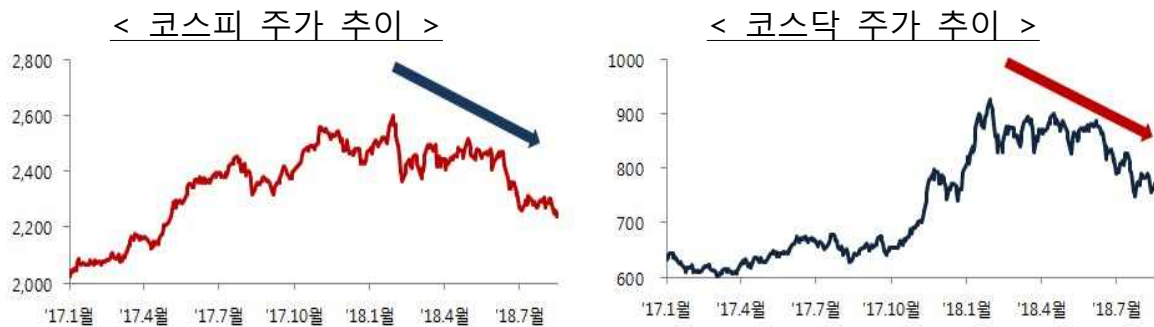
-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최근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과 맞물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함.

◇ 최근 韓 주가지수에 대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17년 이후 상승 추세였던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18.1월 이후 하락 추세임

* 코스피 : ('17.12.28.) 2467.49pt → ('18.8.17.) 2247.05pt / △8.9%
코스닥 : ('17.12.28.) 798.42pt → ('18.8.17.) 772.30pt / △3.3%



- 美 금리 인상, 美·中 무역분쟁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는 가운데 외인 자금 유출*이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

*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조원) : ('16년)+12.4 → ('17년)+9.7 → ('18년중)△4.0

- 글로벌 통상분쟁 심화·터키 금융 불안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제기

< 18년 중 코스피·코스닥 대내외 주요 이슈 >



-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비중이 큰 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려로 최근 시장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임

* 코스닥 제약·바이오 비중 : 21.8%(시가총액 기준), 1월말 대비 △25.0% (제약 기준)

◇ 다만, 시장전문가들은 대외 변동성 확대와 국내 실물경제 둔화모습 등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

① 실물경제 호황에 따른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글로벌 주요 증시는 동반 하락 추세를 보임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을 중심으로한 자금경색,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등 주요국 증시는 연초 대비 하락함

○ 특히, 무역분쟁으로 중국 시장 하락이 두드러지며, 글로벌 분업 구조 상 중국 경제와 연관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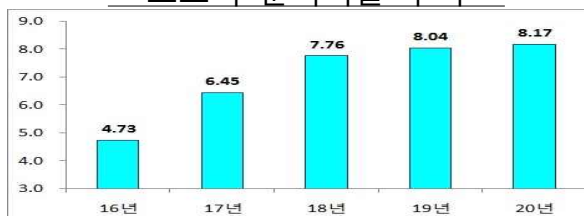
< 글로벌 주요 증시 추이 ('18년초 대비 8.17일 기준) >

한국 (코스피)	일본 (니케이225)	중국 (상하이)	싱가폴 (STI)	브라질 (BOBESPA)	미국 (다우)	미국 (나스닥)	독일 (DAX30)
2,247 (△8.9%)	22,270 (△2.17%)	2,669 (△19.30%)	3,209 (△5.69%)	76,029 (△0.49%)	25,669 (+3.84%)	7,816 (+13.22%)	12,211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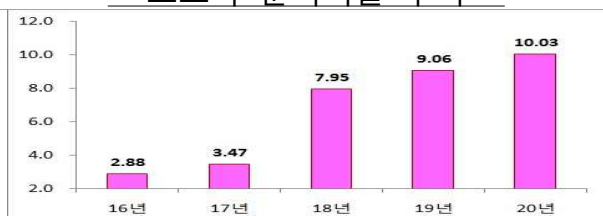
② 최근 상황은 대외변수가 큰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국내기업의 실적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음

○ 과거 수익률 추이와 향후 예상치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반영되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 코스피 순이익률 추이 >



< 코스닥 순이익률 추이 >



* '16~17년은 실적치, '18~'20년은 예상치(Bloomberg, 시장 컨센서스)

○ 코스피 PER 등은 장기 평균수준보다 낮은 상황으로 최근 주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하방압력이 先 반영되었다는 평가임

< 코스피 PER 추이 >



< 코스피 PBR 추이 >



◇ 정부는 그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차츰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i) '18년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70.2%가 증가한 6.3조원 수준임

* 코스닥 일평균 거래(조원) : (14)2.0, (15)3.5, (16)3.4, (17)3.7, (18.上)6.3

ii)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금년 중 코스닥 시장으로의 신규 IPO 기업이 '15년 이후 2번째로 100개 이상 상장이 기대됨

* 코스닥 신규 IPO(개) : (13) 40, (14) 69, (15) 122, (16) 82, (17) 99, (18e) 105

- 금년 상반기 중 코스닥 IPO 실적(27개 기업)은 저조했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많은 기업의 신규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iii)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KRX300*") 등으로 기관·외국인의 코스닥 시장 참여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우정사업본부 연기금 최초로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200에서 KRX300으로 교체(6.14.)

** 기관·외국인 매매비중(%) : (07)7.1, (10)6.6, (13)10.1, (16)9.4, ('18.7.)17.4

- 코스닥 기업 비중이 60%가 넘는 KRX Mid 지수가 도입('18.6월) 되고, KRX 300 섹터지수가 개발(8.20)되는 만큼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참여와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함

iv) 투자 정보 확충을 위한 기술분석보고서 사업을 통해 시장에서 발간되기 어려운 120개 기업에 대한 IR보고서가 지원됨

* 코스닥 기술분석보고서 총 137건 발간('18.5.31.~'18.8.17.) → 120개사가 지난 1년간 증권사 IR 보고서가 1건도 발간되지 않았던 기업

- 코스닥 기술분석보고서가 발간된 기업은 발간 이후 거래가 48.9% 증가했다는 평가 등도 있는 만큼, 계획대로 600개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임

◇ 향후에도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은 적극 대응하고,

- 우리 경제의 미래는 혁신기업 성장에 달려있는만큼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먼저, 대외변수 등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정부는 시장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음

□ 혁신성장을 위한 우리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 혁신기업의 창업·성장과 함께 코스닥 시장을 통해 Scale-up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임

□ 지난 1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할 것임

- 연기금 차익거래세 면제('19년 예정) 등 당초 계획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 금년 11월에는 총 3천억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가 조성, 운영되도록 하겠음

* (일정) 금년 중 2천억원 조성, '19년 중 1천억원 예정
(주목적 투자) 저평가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중심 투자

- 코스닥 벤처펀드의 신주 의무투자기간(現 6개월) 등 제도 보완 사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또한 기업회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의 제도 도입('17.10월 개정 외감법 공포)과 더불어 감리·제재 등 집행방식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음

*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 도입 등 회계감리 시스템을 기존 사후처벌 중심에서 適時 오류수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아울러, 금년 하반기 중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마련, 추진할 계획임

-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성장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 맺음말씀

□ 코스피 시장이 “우리 경제의 현재*”라면, 코스닥 시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임

- 최근 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등 자본시장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신설법인(만개) : ('13)7.6 → ('14)8.5 → ('15)9.4 → ('16)9.6 → ('17)9.8 → (18.上)5.3

* 벤처투자(조원) : ('13)1.4 → ('14)1.6 → ('15)2.1 → ('16)2.2 → ('17)2.4 → (18.e)3.0

□ 코스닥 시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의미있는 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

-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혁신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긴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로 확산되기를 기대함

□ 오늘 이 자리에는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접 코스닥벤처펀드 등을 운용하는 운용사,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셨음

-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미래를 밝게 비출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함

□ 참석자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들은
소중하게 듣고 잘 검토해서
금년 하반기 자본시장 개혁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다시 한번 간담회 참석을 감사드립니다